

適正規模를

1. 서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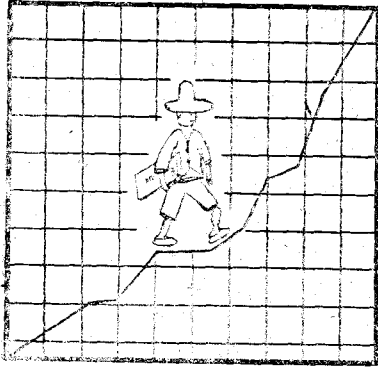
현재 국제적인 사료수급면을 들여다보면 4월부터 대부분의 배합사료원료가격은 계속 하락되어 안정되어 왔으며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크게 사료가격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도 사료의 품질이 차츰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양축가에 대한 거래 조건도 사료메이커 상호간의 경쟁때문에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마저 있었다. 그러나 6월하순부터 국제사료곡물가격은 서서히 뛰기 시작하던 것이 7월에 들어 와서는 급격

히 천정부지로 폭등하여 11월부터의 배합사료 공급면에 증대한 차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가격면에 있어서도 적지않는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므로 앞으로 사료원료의 확보 및 수입 품목의 다양화와 수입국의 다변화 실현이 이제까지처럼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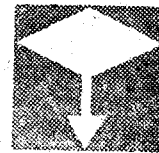
2. 국제적인 사료원료사정

가. 미국산 옥수수과 기타 사료곡물

미국산 옥수수의 감산원인과 가격폭등원인



飼育할 때다



조 홍 래

(한국사료협회 기획부장)

을 개략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가격변동 추세를 아울러 살펴 보고자 한다.

1) 가격안등요인과 수확예상량

감산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파종시기인 5~6월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파종면적이 약간 줄었고 파종시기가 늦어졌으며 특히 질소질비료의 공급이 부족한 위에 파종후 옥수수의 생육시기인 7.8월에 강우부족으로 인한 한발과 고온때문에 생산 예정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예상량의 감소추세를 보면 당초 생산계획이 1.66억톤(66억 붓셀)이던 것이

7.1 현재 작황발표를 보면 미국농무성은 1.51억톤~1.61억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옥수수 생산자협회는 약 1.4억톤(55.1억 붓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레스리라는 통계회사의 발표는 옥수수생산자협회의 추정량보다 적은 1.33억톤(52.2억 붓셀)이라고 한다. 그러던 것이 7월에 계속 가뭄으로 작물에 피해가 컸기 때문에 8.1현재 생산량은 더욱 감소하였다. 1973/74 생산량이 1.43억톤(56.43억 붓셀)인데 비하여 8.1 현재 미국농무성의 작황발표는 1.26억톤(49.66억 붓셀)으로서 전년대비 12%가 감소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옥수수 생산자협회에서도 1.28억톤(5.04억 붓셀)

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미농무성이나 옥수수생산자협회의 추계차이는 불과 200만톤 밖에 없음을 볼때 미국에 있어서의 옥수수의 감소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콩의 생산예상량은 전년도 42.6백만톤에 비하여 35.7백만톤으로 16%가 감소예상되고 있으며 수수도 전년대비 20%가 줄어 들고 있는데 비하여 밀만이 전년도의 46.54백만톤에서 50백만톤으로 증가되고 있을 뿐이다.

2) 가격 폭등요인

미농무성이 발표한 7.1 현재의 사료곡물재고 현황을 보면 <표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년대비 26%가 감소하였으며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식량의 비축량은 세계적으로 볼때 불과 15~27일분 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지역에서 만약 흉작이들 경우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표 1> 7.1 현재 미국의 주요 사료곡물 및 대두의 재고량

종 별	재 고 량	비 고
옥수수	36.2백만톤(14.42억 부셀)	1973. 7. 1 대비 26% 감 1972. 7. 1 대비 34% 감
수 수	4.5백만톤(17.9억부셀)	1973. 7. 1 대비 10% 감 1972. 7. 1 대비 35% 감
대 두	9.4백만톤(3.44억부셀)	1973. 7. 1 대비 92% 증 1970년이래 최대 규모의 재고

자료 feed stuffs 1974. 7. 29에서

이와같이 재고가 적감된데다 미국내 수요는 전년도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각국의 비축수요 등을 감안할 때 수출수요가 증대될 추세에 있으나 생산예상량은 전년대비 옥수수가 12% 수수가 20% 그리고 대두가 16%감소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외의 기타 곡물수출국가의 수출예상량도

당초 계획량에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3) 가격전망

1974. 6. 20~8/9까지의 미국의 옥수수 수수 대두박등 사료원료와 소맥 및 대두의 거래가격과 장차거래가격(future market prices)을 선적월별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아울러 미국내의 수송 선적제비 등 FOB프리미엄가격과 여기에 한국까지의 해상운임을 가산하여 <표 2>에 소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옥수수 거래가격은 6.20일에 톤당 \$107 이던 것이 8.2일에는 \$145.47까지 앙등되었다가 8.9일에는 \$143.42에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산 또는 인천항 도착가격은 미국의 거래가격에다 옥수수 및 수수는 톤당 \$42을 가하면 인수 예정가격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옥수수 거래가격은 수확된 옥수수가 가장 많이 출회되는 12월에 가장 싸고 다시 3월에는 올라갔다 5월에는 약간 낮은 시세로 거래되고 있다. 75년 5월에 가격이 약간하락하는 원인은 하곡인 보리 밀 연백 호맥등의 작황이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시기에 하곡의 작황여하에 따라 옥수수 가격은 변동될 수 있는 것이다. 수수는 옥수수 가격에 비하여 6월하순에는 톤당 \$20 이상의 차이가 있었으나 8.9일 현재 \$17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양돈 및 축우용사료에는 수수가 옥수수에 비하여 사료가치가 그다지 떨어지지 않으므로 가격이 10%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옥수수의 수입량을 일부 줄이고 수수를 대체수입하는 것이 외화절약면에서나 사료가격의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하여서도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대두박시세는 6.20일에 톤당 \$104.50(원화환산 41.80원)에 거래되던 것이 8.2 일에는 \$184까지 상승되었다가 8.9 현재 \$159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소맥은 6.20현재 \$163.13에서 8/9 현재 \$163.50로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두는 6.20일의 \$201.30에서 8.9일에는 \$298.92로 톤당 \$98이나 앙등되

〈표 2〉

미국의 사료곡물 대두 및 대두박 시세

단위 : \$/톤

종 별	선적월	6/20	6/27	7/3	7/11	7/18	7/26	8/2	8/9	8.9/6.20	C&F한국도 착예적가격	비 고
옥수수	74.	9107.07	113.37	116.43	118.99	123.81	139.57	145.47	143.42	134	185.42	미국시장가격에다
		12101.26	108.65	111.99	112.68	118.20	136.62	140.66	140.66	138.9	182.66	옥수수 : 수수 : 42 \$
	75.	3103.43	110.76	114.06	114	119.58	138.39	142.23	142.83	138.1	184.83	대두 : 49 \$
수 수		5104.41	112.34	115.05	114.45	119.78	138.89	142.33	141.35	135.4	183.35	대두박 78 \$
	74.	982.01	91.49	91.49	96.34	109.57	118.82	126.76	126.76	154.6	168.76	소맥 33.50 \$
	10	79.35	88.84	89.95	93.70	106.92	122.35	124.56	124.56	157.0	166.56	
대두박	12	81.57	92.37	92.59	96.56	108.02	—	125.66	126.76	155.4	168.76	
	74.	8104.50	112	115	122	133.50	173	184	159	152.2	237	
	9	108.50	117	120	127.50	138.75	177	192	162	149.3	240	
소 맥	10	111.50	120	125	133.50	144	181	196	166	144.4	244	
	12	116.50	124.20	130.75	136.50	148	185.20	200.20	171.50	147.2	249.50	
	75.	1119.00	127	134	139	151	187.50	202.30	173	145.4	301	
대 두	3	122.50	130	136	141.50	154	191	203.50	175	142.9	253	
	5	126	133	140.50	144	157.50	193.50	206	176	139.7	254	
	74.	9163.13	159.28	162.03	160.75	155.24	169.92	165.88	163.50	100.3	197	
대 두	12	165.70	161.48	163.68	163.41	158.36	173.77	169.37	168.64	101.8	202.14	
	75.	3166.62	163.68	164.97	163.32	158.36	174.88	172.48	172.86	103.8	206.36	
	5	166.80	163.68	165.15	161.85	155.98	171.20	171.76	171.20	102.6	204.70	
대 두	74.	8201.30	209.74	219.74	222.72	253.60	303.32	321.12	298.92	148.5	347.92	
	9	201.67	211.39	220.57	228.09	251.95	295.99	321.13	298	147.8	347	
	11	198.91	209.47	220.75	227.17	230.66	295.44	318.01	298.74	150.2	347.74	
대 두	75.	1200.75	211.39	222.77	228.27	251.76	296.35	316.35	299.29	149.1	348.30	
	3	203.32	213.78	224.43	230.66	252.86	296.54	315.99	299.84	147.5	348.84	
	5	204.42	214.70	225.34	231.58	252.86	296.17	313.51	300.57	147.0	349.57	

자료 : Feedstuffs 및 로이터통신에서

었다. <표 2>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8월 2일에 최고시세를 나타냈다가 옥수수 대두박 및 대두가격이 8월 9일에 약간 하락하였음을 볼수 있다. 이와같이 거래가격이 하락한 원인은 8월 2일(금)에 옥수수 및 콩생산지대에 비가 조금 내렸기 때문에 가격하락현상이 일어났으나 흡족한 강우가 없었기 때문에 9일 이후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 <표 2>를 살펴보면 대체 6월 20일에 비하여 8월 9일에 옥수수 가격은 선적 시기에 따라 다르겠으나 34~39%, 수수가격은 54~57%, 대두박시세는 40~52%, 소맥시세는 0.3~3.8%, 대두시세는 47~50%, 양등되고 있으며 미국의 곡물가격은 생육시기에 있어서 강우량 여하에 따라 시세가 예민하게 변동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전천후 농업국가라 하더라도 자연기상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않을 수 없는 농업의 특수성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

이라 생각된다. 우리가 다시금 가격전망을 하기전에 참고로 알아둘 것은 미국사료곡물협회에서 소개한 바 있거니와 미국의 아이오아주의 옥수수톤당 생산비는 \$82.35이라고 한다. 여기에다 농가수취가격 및 지방시장 거래가격을 \$10~15 FOB 프리미엄과 해상운임 톤당 \$42을 가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품이 수확되면 톤당 \$135~140 선에 인수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였으나 옥수수생산량이 전년 대비 12% 감수, 생산계획대비 24%가 감소에 상되고 또한 재고가 전년대비 26% 감소에 상되기에 더욱 불안한 상태에 있다. 한편 미국의 옥수수 생산자 단체나 사료곡물 거래상에 의하면 앞으로 일기가 계속 불순할 경우 미국내 옥수수 거래가격은 톤당 \$160~180선까지 옥박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며 옥수수의 작황이 아주 불리하므로 미국정부가 옥수수 수출

규제를 단행할지 모른다는 것이 8.12이후 곡물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며 특히 포드대통령이 미국내 물가안정에 중점적인 시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므로 더욱 전망하기 어렵다. 미국이 옥수수 수출을 규제한다면 옥수수가격은 가수요역제 때문에 다소 하락할 전망도 있다고 전망되기도 한다. 이밖에 미국의 옥수수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외적요인을 살펴보면 일본을 중심으로한 항구적 수입국가들의 옥수수의 수입수요는 거의 일정하나 중공이 앞으로 1974/75년에 얼마나 한 옥수수를 미국에서 수입할 것인가 또 구주공동시장 국가가 현재 잉여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백약 1천만톤을 사료용으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식량으로 재분할 할 것인가, 소련이 1974/75년에 얼마만한 수량의 사료곡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것인가 그리고 인도가 얼마정도를 미국으로부터 1974/75년에 수입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불확실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기타 곡물수출국가의 사료수출 전망

알제틴, 부라질, 남아연방, 태국 등 옥수수 수출국가의 옥수수 생산량과 옥수수 수출예상가 농량을 소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1974/75 사료용옥수수 수출예상량

단위 : 만톤

국명	종별	생산량	수출예상량	비고
알제틴	옥수수	960	540	274만톤수출예상중 수확시기의 강우로 감소예상
	수수	500	190	
남아연방	옥수수	1,100	385	
태국	옥수수	230	160	
	타피오카	(뿌리기준) 450	(폐펠) 170	
부라질	옥수수	1,500	50~100	

자료 : FEED TRADE 6월 호에서

상기 4개국의 옥수수 수출예상량은 1,100만톤으로서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73/74) 양 3,300만톤의 30%에 불과하다.

다. 페루산 어분

1969년부터 매년 16,000~23,000톤의 어분을 수입하여 배합사료원료로 충당하여 왔으나 1973년도 부터는 국내 어분생산량의 증가로 완전자급화가 실현되었으며 단백질사료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페루산어분은 미국산 대두박과 더불어 세계의 단백질사료 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1972년부터 어획격감을 가져왔던 페루연안의 멸치잡이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앞으로의 전망이 어하한가 소개드리고자 한다. 페루에서는 매년 1,000만톤 가량의 멸치잡이를 하여 여기서 약 200만톤의 어분을 생산하여 거의 97%가까이를 수출하고 있던 것이 지난 73년에는 불과 425,000밖에 어분이 생산되지 않았고 이와같은 결과 페루의 어분가격은 톤당 \$570까지 앙등된적도 있었으며 미국의 대두박가격을 \$450까지 앙등되게끔 한적도 있었다. 이와같은 페루의 금년 어분생산예상량은 120만톤으로서 1973년의 425,000톤에 비하여 약 80만톤이 증가될추세에 있다. 금년 1~5월까지의 어획량은 220만톤으로서 여기서 429,000톤의 어분이생산되어 전년도 생산량을 약간 상회하였으며 현재 다음 어획기인 9~10월까지 조업이 중단되고 있으나 어획이 개시되면 금년도 생산목표량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한다. 가격은 74.4.25일에 FOB 톤당 \$450이던 것이 7.10일에는 \$260일 8.1에는 \$350에 거래되고 있다.

3. 국내 사료 시세

국내에서의 주요 단미사료시세를 보면 곡류는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식물성 단백질사료 가격은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강류사료와 동물성 단백질사료인 어분가격이 약간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옥수수가격은 도입분이 전년대비 52.3% 내국산이 30.0% 전월대비 보합세를 이루고 있으며 박류사료 가격은 채종박을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표 4〉 주요단미 사료 도매시세 조사표

(1974. 8/15 현재)

구 분	73. 8. 15	74. 7. 15	74. 8. 15	대 비 %	
				74. 8. 15/74. 8. 15	74. 8. 15/73. 8. 15
옥수수 (도입/국산)	43.60	66.42	66.42	152.3	100.0
	55	71.50	71.50	130.0	100.0
대두박	127.50	110 (127)	110 (127)	86.3	100.0
임 박	107	79	90.33	75.1	101.7
호마박	110	80	80.33	73.0	100.4
채종박	92.50	60	46.67	50.5	77.8
아마박	93	77.50	75.00	80.7	96.8
백 강	23.61	30	27	114.4	90.0
탈지강	30.25	35	37.50	124.0	107.1
소백피	(조절용) 18.70	(삯가) 35	(삯가) 38.00	203.2	108.6
어분(상)	165	120	136.33	82.6	113.6
(중)	120	100	107.33	89.5	107.33

73~86%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전월대비 포함대지 약세를 보이고 강류사료가격은 전년 대비 14~24%가 상승하고 전월대비 7~8%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원인은 도입대맥에서

생산되는 맥강을 하곡수매 장려용으로 보리수 매농가에게 맥강을 배정하고 있으며 실지 양축가용으로는 공급량이 부족되기 때문이라 하며 어분가격이 7~13%가 전월대비 상승하고 있는 것은 어분 생산이 감소된데 원인이 있겠으나 이제까지 어분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생산비에도 미달하여 어분 메이커가 출혈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 가격의 적정화가 어분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미국산 사료곡물의 감소와 가격 상승이 직접 간접으로 우리나라 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각종 단미사료가격은 서서히 강세를 나타내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4. 배합사료 생산과 사료 곡물 수급전망

1974년도 1~6월까지의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에 비하여 불과 0.3%밖에 수량면

〈표 5〉

배합사료 생산실적 (1974. 1~6)

단위 : 톤

월 별	구 분	양 계 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우용	농축용	계
		육추용	성계용	육계용	소 계					
74.	1	7,167	30,612	3,702	41,481	12,463	9,022	1,177	586	64,729
	2	6,075	30,113	3,144	39,332	14,539	8,701	1,786	796	65,154
	3	6,743	30,827	3,630	41,200	14,935	8,774	2,005	3,577	70,491
	4	6,963	31,017	6,065	44,045	15,023	9,179	2,933	2,669	113,849
	5	8,114	30,114	7,987	46,215	17,253	9,461	3,254	1,969	78,152
	6	8,181	31,736	8,974	48,891	16,708	8,045	3,265	707	77,616
	계	43,243	184,419	33,502	261,164	90,921	53,182	14,420	10,304	429,991
1973		57,640	228,265	62,135	348,040	40,359	34,783	1,488	4,045	428,715
74/73	10.	75.0	80.8	53.9	75.0	225.3	152.9	969.1	254.7	100.3
용도별 %	1973	13.4	53.3	14.5	81.2	9.4	8.1	2.4	0.9	100.0
	1974	10.1	42.9	7.8	60.8	21.2	12.4	3.3	2.8	100.0
	증감	△3.3	△10.4	△6.7	△20.4	11.8	4.3	2.9	1.4	0

에서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 대비가 25% 감소된 반면 양돈용사료는 125.3% 낙농용사료는 52.9% 비육우용사료는 869.1% 그리고 농축사료가 154.7씩 각각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이를

다시 용도별로 세분하여 보면 양계용사료는 전년의 81.2%에서 60.8%로 줄어졌으나 양돈용사료는 9.4%에서 21.2%로 대폭적인 증가가 이루어졌고 축우사료는 8.5%에서 15.7% 농축사료등 기타사료는 0.9%에서 2.3%로 증가하였다. 가장 감소를 많이 보인 품목은 육

계용사료로서 전년대비 53.9%의 생산량을 나타냈을 뿐이다.

1974년도 사료협회회원의 하반기 사료곡물 수급계획을 소개드리면 <표 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확보된 옥수수과 수수를 적절히 배합하여 쓴다하여도 10월까지 사용하면 불

과 6,000톤의 재고 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1월에 사용할 30,000톤의 옥수수를 태국으로 부터 구매계획중에 있으나 미국산 옥수수가격의 앙등에 영향을 받아 가격이 뛰고 있기 때문에 \$150선으로 확보하게 될 것인지 의문이다.

<표 6>

하반기 사료곡물 수급계획

단위 : 톤

월 별	구 분			수 수			계		
	입 항	사 용	재 고	입 항	사 용	재 고	입 항	사 용	재 고
6			44,894			25,077			69,971
7	18,859	25,339	38,414		6,332	18,745	18,859	31,671	57,159
8	14,062	22,172	30,304	17,475	9,499	26,721	31,537	31,671	57,025
9	12,600	19,005	23,899		12,666	14,056	12,600	31,671	37,955
10		15,838	8,061		5,833	△1,778		31,671	6,283

※ 1974년 6월 사용 실적 기준

5. 전망과 대책

현재 미국의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곡물의 생산 예상량이나 재고량을 감안할 경우 사료곡물 가격은 수확시기가 다가오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추세에 있다. 따라서 하락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 우리가 확보한 원료도 10월이면 고갈된다. 태국산 옥수수 30,000톤중 2만여톤이 \$150~160에 8.20까지 확보되었으나 3만톤이 전량 확보된다면 11월까지의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하여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옥수수의 수출규제를 단행할 움직임이다. 이와같은 수출규제 조치가 강행된다면 가격은 고사하고 물량확보가 문제된다. 수출규제방향은 두가지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첫째는 계약 물량에 대한 공급우선권을 주는 방안이고 둘째는 쿼터제를 실시하여 기존 거래국가에 필요한 물량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문제다. 현재 우리는 수출규제조치에 대비하여 40만톤의 옥수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8.17일자로 미농무성에 이사실이 보고되었다. 단 이와 같은 구매계약은 한국정부의 승인과 미국의 옥수수 수출규제 조치가 전제된 계약이

기 때문에 수출규제가 된다하여도 물량면에서의 확보는 보장된 셈이다. 그러나 수입가격은 현재 사용중인 옥수수 톤당 \$147선에 비하여 20%~30%나 높은 가격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11월 이후 배합사료 가격에 미치는 결과가 문제다.

양축가 여러분은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여 사육규모를 절대로 확대시키지 말고 적정규모를 사육하여 축산물의 재값받기운동에 솔선하여야 할 것이고 당국자는 사료의 파부족이 없이 원료가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구호면에 그치는 수입품목의 다변화나 수입국의 다원화가 아니라 명실공히 수입품목과 수입국의 다변화를 보장하여 외화의 절감은 물론 가격인등의 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우선 당면과제로서는 부족사료 수입의 적정화를 기하되 항구적으로는 사료원료를 수입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보리의 품종개량이나 서류의 증산 등으로 사료의 자급도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고 사료의 장기적인 개발 수입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양축가 여러분은 11월 이후 국내의 여건으로 보아 사료가격의 인상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이 무모한 증식이나 사육규모의 확장을 피하고 알맞게 생산하여 재값받기에 서로 협력하여 축산업의 안정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